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8회)

전도관 제7편

동방의인

차례

전도관 7편

一. 동방의인
二. 누가 동방의 의인이신가?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다.

이만제단에서 사자후(獅子吼)로 토해내는 영모님의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은 전도관 식구들에게는 감격을 주었고, 반면에 전 기독교계에는 큰 충격을 줌과 동시에 비상이 걸리게 만들었다. 신학도 공부 못한 무식한 박 장로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도관 어린 청소년들이 교회로 찾아가서 질문을 해대는 통에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목사들은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 다급하게 동방의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 청소년들의 질문을 받고 목사들이 답변을 못해 쩔쩔 매는 모습을 본 교인들의 수근대는 소리를 목사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목사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성경 이사야서 41장을 들여다 본다고 하여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한국의 모세라고 칭송을 받던 유명한 모 교회의 모 목사는 일요예배시간에 동방의인은 당시의 바빌로니아왕 고레스라고 설명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기 주먹을 들어보이며 지구는 이와 같이 둥근데 이 쪽에서 보면 이 쪽이 동방이고 저 쪽에서 보면 저 쪽이 동방인데 무슨 동방이 한국이라고 하는지 무식한 사람의 말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 이사야서 41장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동방의인은 이스라엘 포로에 대해서 해방령을 내린 바빌로니아 왕 고레스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동방의인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쳤다. 이에 그 교회에 찾아간 전도관 청소년이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에 땅끝 땅모퉁이가 되는 나라가 동방나라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땅끝 땅모퉁이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라고 질문을 하니 그 목사는 당황하여 "학생, 지금은 예배시간이니 예배 끝난 다음에 내 사무실로 오라. 그러면 내가 자세히 알려주지"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전도관 청소년들이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지키고 있다가 다짜고짜로 끌고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몇 대 날리고는 또 한 번 소란을 피우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을 하고 쫓아내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단편적인 사실의 일부를 소개한 것 뿐이다. 일부나마 이와 같은 일화를 소개하여 당시 상황이 어떠 했는지를 짐작이 가게 하고 싶어서 소개한 것이다. 이와같은 일은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니 예배시간마다 목사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였을까는 상상에 맡기겠다.

박태선 장로님

二. 누가 동방의 의인이신가?

우리는 위에서 동방의 의인을 증거하시는 박태선 장로님이 동방의의인일 것이라고 심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다. 정말로 박태선 장로님이 동방의 의인이신가? 지금부터는 동양과 서양의 예언서를 통해서 누가 동방의 의인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비결서(秘訣書)를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사실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비결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또 성경보다도 더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가 세계민족의 부모국이 된다고 했고 세계를 구원시킬 유일한 민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 같이 된다는 내용의 비결내용을 하나 하나 찾아서 확인해 보면서 동방의인이 누구인가를 결론지어 보기로 하겠다.

1) 동방의인은 북한에서 나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다

가. 성경속에 예언되어 있다(사41:25)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켜 오매 저는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

동방의인은 분명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오시어 역사하게 되어 있으니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박태선 영모님은 분명 해당이 된다.

박태선 영모님은 이북 평안남도 덕천에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이다.

나. 격암유록 새41장과 계룡론에 같은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三八之北出於聖人 天授大命.....
삼팔지북출어성인 천수대명

새41장
"삼팔 이북에서 큰 사명을 받은 성인이 오시도다."

여기서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삼팔이북에서 태어난 분이 하늘의 큰 사명을 받은 성인으로 나오신다는 것이다.

南來鄭氏誰可知 弓乙合德眞人來 南渡
남래정씨수가지 궁을합덕진인래 남도
蛇龍今安在.....鷄龍論
사룡금안재 계룡론

"북쪽에서 나서 남쪽으로 온 정도령을 누가 알겠는가? 궁을의 덕을 합한 진인으로 오시도다. 남쪽으로 건너온 사룡은 지금 편안히 계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으로 건너온 진인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인이다. 동방의인은 반드시 북쪽에서 태어나서 남쪽으로 온 분이다.

2) 동방의인은 북한에서 나서 일본에 가셨다가 남한으로 와서 소사에 정착하시어 이슬은혜를 끼쳐 주신 분이다

辰巳聖君正道令이 金剛山精運氣바다
진사성군정도령 금강산정운기

北海島에 孕胎하여
북해도 잉태

東海島에 沈暫터니 日出東方鷄鳴聲에
동해도 침잠 일출동방계명성

南海島로건너와서
남해도

天授大命指揮故로 紫霞島에 定座하사
천수대명지휘고 자하도 정좌

.....松家田
송가전

"진사성인출된 성인군자 정도령이 금강산 정기로 운을 받아 삼팔이북 북해도에서 잉태하여 동해도인 일본으로 잠침하였다가 때가 되어 일출동방 계명성에 남해도인 삼팔이남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대명을 지휘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줏빛저녁 노을과 같은 이슬은혜가 내리는 섬 같은 별정지에 정좌하사"

여기 송가전에는 더욱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오시어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 분이 바로 동방의인이라고 하였다. 박태선 영모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고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이다. 더욱이 영모님은 완전한 이슬성령을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 이룬 분으로 송가전의 예언은 이슬은혜를 받아 내려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증거를 보아 박태선 영모님이 동방의인이라고 결론내리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박태선님이 동방의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독자들은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가는 내용을 주시해 보시기 바란다.*

도덕경 해설

故知足之足 常足矣

고지족지족 상족의

고로 족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항상 만족하게 된다

도덕경 46장 해석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이 '전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 불편함 없이 생활하던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체의 살아가고자 하는 자연스런 행위가 제약을 받고 부자유하게 되는 전쟁의 참혹함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성적 사고를 할 정도가 되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런데 흔히 이러한 무서운 전쟁의 발단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기에는 무슨 복잡하고 그럴듯한 구실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많은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낱 쓰레기처럼 치부하게 되는 전쟁의 경위를 살펴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 불씨가 되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서로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익 분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대되어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인간의 욕심과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져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전쟁의 화근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하고 각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소하고 경미한 말과 행동이 이웃 간에 불화와 전쟁으로 커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상의 작은 말과 행위도 규모와 절도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제를 깔고 임해야 할 거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도요, 수행이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란, 바로 평상시 생활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도와 연관되지 않는 생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이 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일상의 삶이 곧, 큰 깨달음과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天下有道(천하유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가 있는 세상이란 생명을 제일로 여기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말한다.

却走馬以糞(각주마이분): 잘 달리는 말(전쟁에서 쓰는 말)도 똥을 나르고

전쟁에서 이용해야 할 말이 농사를 짓고, 수레를 끌고, 사람을 태우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天下無道(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없으면

도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남을 경쟁자와 적으로 여기며, 항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긴장하고 다투는 세상을 말한다.

戎馬生於郊(융마생어교): 전투용 말이 들판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집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말(馬)이 전쟁 중에서 말이 아무데서나 새끼를 낳는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말한다.

禍莫大於不知足(화막대어부지족):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전쟁의 발단은 사람 속의 욕심이 화근이 되어 만족함을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咎莫大於欲得(구막대어욕득): 허물은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사람의 허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눈이 멀어 매사를 잘 살피지 못해 벌어지는 것이다.

故知足之足(고지족지족): 고로 족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고로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왜 좋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깨닫는다면

常足矣(상족의): 항상 만족하게 된다

사람이 항상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